

지금은 버림의 시간입니다

■ 본문

온 1:4-10

■ 시작 찬송가

104, 123, 302장
(통 104, 123, 408장)

■ 헌금 찬송가

276, 279, 453장
(통 334, 337, 506장)

▶ 버리다

1.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

- 1) 목숨
(요일 3:16)
- 2) 자신
(엡 5:2)
- 3) 자기 몸
(갈 2:20)
- 4) 자기 영혼
(사 53:12)

2. 성도가 버릴 것

- 1) 죄
(욥 33:17)
- 2) 악
(시 34:14, 사 7:15-16)
- 3) 이방 신상
(창 35:2)
- 4) 이방의 더러운 것
(스 6:21)
- 5) 죄악
(욥 11:14, 잠 28:13)
- 6) 분노
(시 37:8, 엡 4:31)
- 7) 악한 생각
(사 55:7)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나서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고, 앗수르에 속한 큰 도시였지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 뜻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나서에는 독특한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요나를 죽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요나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요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요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같은 모습입니다. 니느웨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넙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온 4:10-11

오늘 본문은 요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니느웨로 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되돌리시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회개에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씻음'과 '버림'입니다. 먼저 '씻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버림'없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버림

버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때 빈방은 없었고, 오직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과 그들의 먹이통인 구유만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워져 있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비워진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비워진 곳에서, 비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는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되자, 살기 위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버리는 뱃사공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폭풍이 오기 전에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 폭풍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온 1:4-5

물건을 정리하는 버림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쓰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끔 쓰는 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자주 쓰는 것을 버리는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아끼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버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폭풍 가운데 뱃사공들은 계속 물건을 버립니다. 하지만 결코 폭풍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기 원하셨던 것은 요나의 생각, 고집, 그리고 미움이었습니다.

욥 1:11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적혀 있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다른 일행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을 버리기 전에 '자신의 자아'를 먼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 4: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눅 5: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릴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눅 5:4-6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버림은 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스페인 남쪽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티그리스 강의 북동쪽에 위치한 니느웨와는 수천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 물건을 버리는 뱃사공들에게 요나는 이제 '자신을 바다에 던져 달라'라고 말합니다.

욥 1:12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을 버리면 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있듯이 자신을 버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버림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 가운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비하사'입니다. 요나는 이미 예비하신 줄 알고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 1:17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니라**

대림절 기간,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버릴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됩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3. 성도가 버리지 말 것

- 1)하나님
(삼상 10:19, 수 24:20)
- 2)말씀
(렘 6:19, 사 5:24)
- 3)그리스도
(요 12:48, 마 26:56)
- 4)하나님의 율례
(시 18:22)
- 5)지혜
(잠 4:6)
- 6)처음 사랑
(계 2:4)
- 7)믿음
(계 2:13)